

프리기아(Phrygia) 모자에 대한 연구

장영수

독일 고고학 연구소(비교 고고학 분과), 객원 연구원

A Study on Phrygia Headgear

Dr.-Phil. Youngsoo Yi-Chang

Guest Researcher, The German Archaeological Institute
(Commission for General and Comparative Archaeology)

(2005. 1. 26 토고)

ABSTRACT

Phrygia headgear has an important meaning from the perspectives of costume history and cultural exchanges in ancient time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totype of Phrygia headgear through analysis of its manufacturing methods and styles on the basis of prior studies on ancient sculptures and literatures conducted by European researchers and to examine its history and meanings. In these ways,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Phrygia headgear in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hrygia headgear was worn by eastern tribes, so it was a symbol of those from the east in ancient times. Phrygia headgear is frequently found in Greek artistic works of 5th to 4th century BC that depicted eastern tribes. Also, this headgear can be observed in artistic works for Mithras, Attis, or other gods.

Since Phrygia headgear's shape is similar to that of Homer's helm, many researchers believe that it might be originated from Homer's helm.

This headgear made of oxen scrotum (stierbeutel) or its surrounding skin has a long end at the top. This long end is round and drooping toward the front side. From such unique shape, we can draw a conclusion that Phrygia headgear was made of oxen scrotum and its surrounding skin. Depending on drooping patterns, there are various shapes, such as the round, tightly swollen one worn by Mithras, the tongue-shaped one found in Basilika S. Apolinare Nuovo's mosaic depicting three wise men, the balloon-shaped one frequently found in Greek vases depicting Scythian, and the one drooping to the side depicted in Alexandersarkophag. Further, some Phrygia headgear has covers for neck and ears. For example, Phrygia headgear worn by Persian Satrap tribe has such covers attached to the head part. Meanwhile, Phrygia headgear worn by Amazone tribe does not show such separate covers. Rather, one piece of oxen skin was tanned and finished to make such covers. Wearing Phrygia headgear can be interpreted in several ways. Use of animal's skin for wearing things is a unique aspect in ancient societies because they believed that wearing animal skin would give them power of the animal. Further, Phrygia headgear made of oxen scrotum was a symbol of reproductive power to women.

Key words: Phrygia(프리기아), headgear(모자), cultural exchange(문화교류), east(동양), west(서양)

I. 서론

프리기아 모자는 기원전 8세기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Anatolia)¹⁾지방에 프리기아 왕국을 세웠던 프리기아 인들이 썼던 모자였다. 프리기아 왕국 이후에는 주변 여러 종족들 특히 에게해 동쪽지역에 살던 종족들, 예를 들어 트로야(Troja, 트로이)인, 아마존(Amazone)인들이 이 모자를 받아들여 착용하여 이 모자는 동방의 모자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때는 이 모자가 페르시아에서 대중화되기도 하여 페르시아 모자로 불려지기도 했었는데 이는 페르시아의 대중종교였던 미트라(Mithra)교의 미트라(Mithra)神이 항상 프리기아 모자를 쓴 형상으로 묘사되어진 것에서 유래한다. 이런 배경으로 프리기아 모자는 그리스 예술과 초기 기독교 예술에서 동방 문명의 상징물로 나타나는데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와 소아시아가 전쟁, 교역들을 통해 활발히 접촉하던 시기인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로 접어드는 전환기에 만들어진 미술작품에서 동방인의 묘사에 자주 사용되어, 이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동방 출신임을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동방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²⁾. 로마인들은 로마제국 초기에는 프리기아 모자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모자를 그리스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이 썼던 모자라 하여 이방인들의 표시로 사용하기도 했으며,³⁾ 또한 페르시아로부터 들어온 미트라교가 로마에서 대중종교로 폐졌던 시대에는 프리기아 모자가 대중적 모자로 보편화되어지기도 했었다. 한편, 로마시대에는 자유롭게 석방된 노예들이 자유의 상징으로 이 모자를 착용하기도 하였는데 이 의미는 근대 복식에 전이되어져 프랑스혁명 때 혁명군들이 자유의 상징으로 착용했던 야코비모자(Jakobinermuetze)는 로마에서 석방된 노예들이 착용했던 프리기아 모자에 그 원형을 두고 있다⁴⁾. 오늘날에도 이 모자는 일부 어부들, 동화 속에 나오는 난장이들 또 한동안 유행했던 슬룸프(Schlumpf)인 형 등에서 계속 관찰되고 있어 우리는 프리기아 모자의 역사성을 실감할 수 있다.

이렇듯 프리기아 모자는 고전시대부터 문명 교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또 근대와 현대의 삶 속에서는 특별한 의미의 상징물로 사용되어 복식사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프리기아 모자의 형태와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식을 통한 고대 문명교류사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류 문명사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프리기아 모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복식을 통한 문명교류사의 의미를 재인식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침체되어있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우려는 것이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형상들, 즉 神의 형상과 고대 동방인들 또 일반 로마 시민과 노예들의 형상에 한정했으며 연구의 방법으로는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한 각각의 형상들을 시대적 상황과 연결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며 프리기아 모자를 그 모양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그 원형과 제작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현존하는 고대시대의 조각품과 회화에 나타난 형상을 실증론적 방법으로 분석한 유럽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 이용된 그림들은 독일 비교 고고학 연구소와 본(Bonn) 대학 고전문학 연구소(Klassisches Institut)에 비치되어 있는 원본들을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III. 이론적 배경

1. 프리기아의 역사적 배경과 그 예술

프리기아 인들은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종족으로 헤타이트족(Hethiter)이 아나톨리아에서 멸망한 시기인 기원전 12세기에 그들의 고향인 마케도니아(Makedonia)-트라커(Thraker)⁵⁾지방에서 아나톨리

아(Anatolia)로 이주했다. 이때는 트로야(Troja)와 미케네(Mykene) 왕국이 망하고 난 이후인데 프리기아 왕국은 기원전 8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고르디오스(Gordios)가 이 왕국의 창시자였고 그 수도는 그의 이름을 따서 고르디온(Gordion)이라 했는데 지금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Ankara)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이었다. 기원전 695년에 프리기아인들은 흑해 쪽에서 내려 온 키메르(Kimmerer)인⁶⁾에게 정복당하여 왕국의 일부를 잃었고 그 후 기원전 549년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당해 멸망하였다⁷⁾(그림 1).

발칸 반도에서 이주한 프리기아 인들은 오리엔트 문명⁸⁾을 받아 들여 그들 특유의 양식을 만들었고 동 서양을 잇는 통로적 위치에 있었던 그들의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예술을 발달시켰다. 19세기 초 많은 조형물을 새겨 넣은 돌로 만든 건물의 앞면 조각으로 추측되는 바위조각이 西 프리기아와 파파라고니엔(Paphlagonien) 북쪽 지역에서 발견되면서 프리기아 예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시작되었는데 이 바위 조각이 무덤의 한 조각이었는지 아니면 종교적 제단의 한 조각이었는지는 아직 논란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형식은 프리기아의 지역적 특징을 대변하는 양식적 요소 즉 북쪽지방에서 전래한 요소에 지중해지역의 요소가 혼합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어⁹⁾ 프리기아 예술의 특징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프리기아인들은 그들의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그리스에 오리엔트 문명을 전한 중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 한 예로 프리기아 인들이 도자기에 그렸던 기하학적 표현은 그리스 도자기에 묘사된 기하학적 문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으며¹⁰⁾. 또한 그들이 선호했던 동물문양이 그려진 토기가 기원전 5-6세기 그리스의 건축물에서 발견됨으로써¹¹⁾ 고고학자들의 위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프리기아의 이런 양식적 특징은 그들이 많이 사용했었던 철기제품, 특히 옷핀(Fibeln), 그릇, 방패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프리기아는 직조술, 편물업이 발달한 나라로 직물장식이 화려했다고 전한다¹²⁾.



〈그림 1〉 기원전 1000-500년 사이의 소아시아¹³⁾
1. 프리기아 인(Phrygia), 2. 키메르(Kimmerer)인

IV. 프리기아 모자의 분석

1. 프리기아 모자의 전래와 제작방법

프리기아 모자가 일리아(Ilia)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헬멧 코리스 트리팔로스(Korys tryphalos) - 혹은 코리스 암피팔로스(Korys amphiphalos) - 에서 전래되었다는 연구¹⁴⁾가 있어 호머(Homer)의 헬멧을 살펴보며 그 상관관계를 관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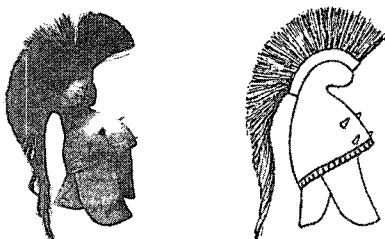
1) 호머의 가죽 헬멧

호머의 전설에 호머의 가죽 헬멧인 코리스(Korys)와 호머의 방패는 황소의 가죽으로 만들어 졌다고 전한다¹⁵⁾. 호머의 가죽 헬멧의 형태는 헬멧의 위 끝 부분이 앞으로 약간 구부려져 쳐져 있고 이마 앞면에는 좌우 양옆으로 2cm 정도 되는 꼹지(Phaloi)가 10cm에서 15cm의 간격으로 2개씩 나란히 모두 4개가 솟아있다¹⁶⁾. 헬멧 위에는 말 털로 만든 숲(Lophos)이 고정쇠(Pelex) 위에 붙어 있고¹⁷⁾ 헬멧 뒤 목 부분과 양 옆에는 목과 뺨을 보호하기 위한 덮개가 달려 있는데 헬멧에서 이 덮개가 달려져 있는 부분은 보통 가죽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스텝파네(Stephane)라는 끈으로 장식되어 있다¹⁸⁾(그림 2). 또한 호머의 헬멧에는 턱 밑에서 헬멧을 고정시킬 수 있는 히마스(Himas, 혹은 오케우스-Ocheus)라는 끈이 달려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가

죽 끈으로 만들어 졌는지 아니면 목과 뺨을 보호하기 위해 붙여진 덮개에 붙여져 달려있는지는 확실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¹⁹⁾.

이런 형태의 특징과 구조를 연구하여 고고학자들은 호머의 헬멧은 황소의 음낭과 그 부분에 붙어 있는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그 외에 몇 가지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즉 위에서 설명한 호머의 헬멧의 앞에 붙어 있는 꼭지는 황소의 음낭 앞에 붙어 있는 황소 가슴의 젖꼭지로²⁰⁾ 약 0.5 cm 두께의 이 젖꼭지는 건조되는 과정에서 작은 관(管) 모양의 딱딱한 조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작은 뿔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헬멧에 이용되어서는 전사들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고 했다.²¹⁾ 또한 헬멧의 이름 트리팔로스(tryphalos-tetra=4 Phalos)와 암피팔로스(amphiphalos-amphi=양면 Phalos)는 이 앞면에 붙어 있는 양(amphi=양면) 앞의 4개(tetra=4)의 꼭지(Phaloi, Phalos)를 의미하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설명하며 호머의 헬멧은 보통 두께가 5cm 되는 가죽을 무두질해서 머리모양의 틀에 덮어씌워 건조시켜 만든다고 했다²²⁾.

또한 호머의 헬멧의 종류에는 술이 없는 헬멧 알로포스(alophos)와 꼭지가 없는 헬멧 아팔로스(aphalos)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헬멧을 카타이티克斯(Kataitix)라고 하며, 이는 가죽을 훨씬 더 많이 무두질해서 만든 것으로 보통 헬멧보다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카타이티克斯는 중무장한 군인들 보다는 가볍게 무장한 군인들이 착용했다고 한다. 이 카타이티ックス가 프리기아 모자의 원형이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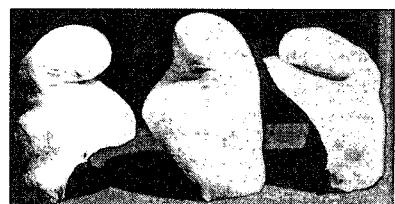


〈그림 2〉 호머의 가죽 헬멧, 코리스 트리팔로스(Korynos tryphalos)의 복원도²⁴⁾

〈그림 2-1〉 상세도

2) 프리기아 모자의 형태

프리기아 모자의 형태적 특징은 모자의 끝 부분으로, 약간 길고 둥근 모양인 이 부분은 위를 향해 꼿꼿이 서 있지 않고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 쳐져 있는데 이는 황소의 음낭 부분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쳐져 내려와 만들어진 형태적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다(그림 3)²⁵⁾. 위에서 언급한 호머의 헬멧과 프리기아 모자의 다른 점은 헬멧 앞에 붙어 있는 꼭지의 유무이다. 프리기아 모자는 전쟁 때 쓰는 헬멧이 아니므로 호머의 헬멧에서처럼 보호의 기능을 갖는 꼭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프리기아 모자를 만들 때는 젖꼭지 부분은 잘라내고 만들었다고 한다²⁶⁾. 한편 보통 헬멧 보다 가죽을 더 많이 무두질 해서 만든 프리기아 모자는 일반적으로 브라운 색을 띠게 되는데, 무두질 할 때 넣는 첨가물에 따라 다른 색의 모자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한다. 미트라 신에게서 자주 관찰되고 있는 빨간색의 프리기아 모자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²⁷⁾.



〈그림 3〉 모자의 앞부분이 여러 모양으로 건조된 프리기아 모자의 복원도²⁸⁾

2. 프리기아 모자의 착용형태

1)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형상에 묘사된 프리기아 모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가니메드(Ganymed)는 트로이의 왕 트로스(Tros)의 왕자였는데 제우스(Zeus) 신은 가니메드의 용모에 반하여 그를 납치하여 신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²⁹⁾.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전 12세기의 트로이(Troja) 전쟁보다 한 세대 오래된 시기의 이야기이다. 이 테마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 도기화가 들에게 인기가 있어 가니메드와 제우스의 형상은 그리스 도자기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로마의 예술가들 또한 이 테마를 모자익(Mosaik)이나 석관의 부조물에 형상화 시켰는데³⁰⁾ 가니메드는 주로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하고 있어 그의 출신이 동방인임을 쉽게 짐작케 한다. 현재 나폴리 국립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가니메드 조각상을 살펴보면 그가 쓴 프리기아(Phrygia) 모자는 윗부분이 혀 모양으로 끝이 납작하고 뾰족한 형태이며 목과 귀 덮개 부분이 없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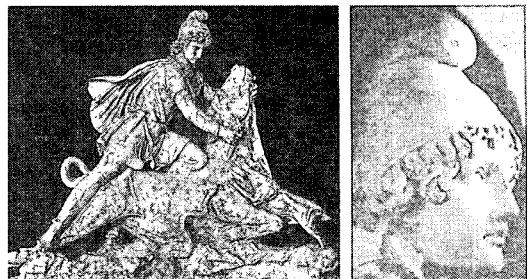


〈그림 4〉 프리기아(Phrygia) 모자를 쓴 가니메드 조각상의 머리, 나폴리 국립 박물관³¹⁾

미트라교(Mithraism)의 미트라 神은 항상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했다. 기원전 4세기경에 페르시아에 등장한 미트라교는 원래 페르시아의 종교 조로아스터교에서 발전한 종교로 1세기경에는 로마제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여 로마세력의 절정기인 안토니우스 시대 즉 3세기에는 페르시아의 혼합주의적 신앙인 미트라 숭배가 로마제국의 주된 종교가 되었었다³²⁾. 그러나 313년 콘스탄티누스(Kontantinus)가 그리스도교로 전향한 후에 미트라교는 로마에서 급격히 사라졌다³³⁾.

현존하는 미트라 神의 형상은 미트라교가 로마에서 주된 종교가 되었던 시기인 1세기에서 4세기의 작품들이다. 그중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미트라 神의 조각상에서 볼 수 있는 프리기아 모자의 형태는 앞으로 쳐져있는 모자의 끝 모양은 둥글고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형태로 앞에서 살펴본 호머의 헬멧에서 보이는 목과 귀 부분을 가리는 부분은 없는 형태이다(그림 5).

또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라커(Thraker)³⁴⁾ 지방 출신의 그리스의 전설적인 악사 오르페우스(Orpheus)³⁵⁾와 트라커의 女神 벤디스(Bendis)에게서



〈그림 5〉 프리기아 모자를 쓴 미트라(Mithra) 神³⁶⁾, Vatikanische Museum Rom

〈그림 5-1〉 상세도³⁷⁾

도 프리기아 모자가 관찰되고 있는데, 프리기아 인들은 원래 트라커 지방에 살다가 아나톨리아로 이동해 간 종족으로 이는 프리기아 인들이 이동하기 전에 이미 트라커 지방에서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외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리기아 출신의 神 아티스(Attis)와 아나톨리아 돌리해(Doliche)지방에서 섬기던 돌리해누스(Dolichenus)도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데³⁸⁾ 이 형상들에서도 프리기아 모자는 그 출신 지방과 관계되는 것으로, 그리스 인들은 이 프리기아 모자로 그들의 출신을 설명하려 한 듯하다.

2) 동방의 여러 종족들이 착용한 프리기아 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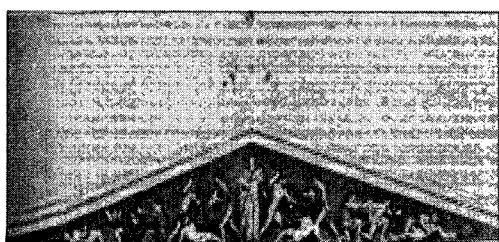
그리스 고전시대 미술작품 중 동방의 여러 종족들은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하고 있어 그리스인들과 구별되는데 그 중 트로야(Troja)인들은 그리스와 트로야의 전쟁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에서 자주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하고 등장하고 있다. 그 한 예로 기원전 1세기 작품인 그리스의 은잔에 묘사된 트로야인을 관찰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프리기아 모자를 쓴 프리아모스(Priamos)는 무릎을 끊고 엎드려 아들 헥토르(Hektor)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며 트로야의 적인 그리스 장군 아킬레스(Achilles)의 손에 입을 맞추고 있다³⁹⁾(그림 6). 프리아모스(Priamos)가 쓴 프리기아 모자는 미트라 神과 가니메드의 프리기아 모자와는 달리 호머의 헬멧에서처럼 귀와 목 덮개가 모자부분에 달려있다. 또한 프리아모스의 아들이며 트로야 전쟁을 일으키

게 했던 장본인인 파리스(Paris)도 이와 비슷한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의 모습은 그리스 에기아(Aegia) 섬에 있는 아파이아(Aphaia) 신전의 페디먼트(신전의 지붕 장식 조각)에서 관찰된다. 이는 기원전 약 490-480년의 작품으로, 지붕의 서쪽 면을 장식하고 있는 길고 낮은 페디먼트에는 그리스와 트로야의 여러 전사들이 묘사되어 있다(그림 7).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활을 쏘는 파리스의 형상이 후에 로마인들에 의해 사실적 조각으로 재현되어 그가 쓴 프리기아 모자를 더욱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간에 뛴다 조각 박물관(Glyptothek Muenchen)에서는 로마의 이 파리스 조각을 연구하여 색과 형태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였다(그림 8). 파리스가 쓴 프리기아 모자는 귀와 목 덮개가 붙어있는 형태로 프리아모스가 쓴 모자와 거의 같으나 귀 덮개는 모자 뒤로 묶여져 있다. 아마도 이는 활 쏠 때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좌장 방법으로 짐작된다.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리스가 페르시아 전쟁을 겪는 등 동방인들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그리스 문화에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던 시기였다. 이때 그려진 그리스 화병에



〈그림 6〉 아킬레스와 프리기아 모자를 쓴 프리아모스⁴⁰⁾
〈그림 6-1〉 상세도



〈그림 7〉 아파이아(Aphaia) 신전의 페디먼트⁴¹⁾, Glyptothek Muenchen, 2003.



〈그림 8〉 프리기아 모자를 쓴 파리스⁴²⁾, Glyptothek Muenchen, 2003.

〈그림 8-1〉 상세도

는 스키타이인(Skythai), 트라커(Thraker)인, 페르시아(Persia)인등 동방인들이 그들 고유의 복장과 함께 묘사되어 있어 그 당시 그리스 인들에게 미친 동방문화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⁴³⁾. 그 대표적인 한 예로 기원전 520년 작품인 그리스의 대접(attische Trinkschale)에 묘사되어 있는 그리스 전사와 스키타이 전사의 전투 장면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스키타이인들은 목과 귀 덮개가 어깨선 밑으로 길게 내려져 있는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있다. 이는 트로야의 왕 프리아모스와 그의 아들 파리스의 형상에서 보이는 프리기아 모자와 비슷하나 모자의 끝 부분은 강조되어 풍선처럼 둥글게 위로 솟아 있는 형태이다(그림 9). 이외에 스키타이인의 프리기아 모자에서는 모자의 끝부분이 달팽이처럼 말려 들어간 형태도 관찰되고 있다(그림 10). 머리를 감싸는 부분에 붙여지는 목과 귀 덮개는 목과 귀 덮개가 머리를 감싸는 머리 부분의 연장으로 재단된 형태로 슈뢰더(Schroeder)⁴⁴⁾와 레크(Raeck)는 그리스 변방 종족의 하나인 트라커들이 썼던 트라커 모자인 알로페키스(Alopekis)⁴⁵⁾와 그 모양이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원전 4-5세기 그리스 화병에 묘사된 알로페키스(Alopekis)의 형태(그림 11)를 살펴보면, 목과 귀 덮개가 머리를 감싸는 머리 부분에서 밑으로 길게 내려뜨려져 어깨 밑까지 내려온 형태로 위의 스키타이 전사가 쓰고 있는 프리기아 모자와 그 형태가 비슷하나 모자의 끝부분은 프리기아 모자와는 달리 작은 꼭지를 형성하며 위로 솟아 있다⁴⁶⁾. 이렇게 모자에 목과 귀 부분을 덮

는 부분이 있는 형태는 전사들의 머리쓰개의 특징인 듯하며 아울러 트라커인 들이나 스키타이인 들이 활동했던 추운 지방에서 신체를 감싸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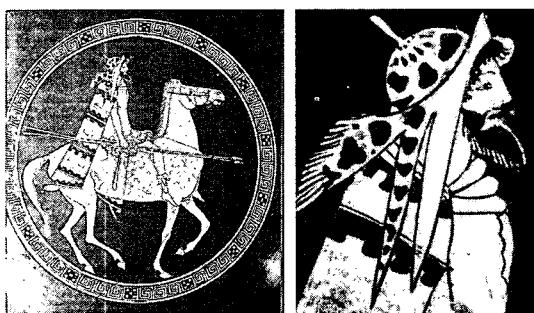
그리스 전설에 등장하는 여성군단으로 소아시아



〈그림 9〉 풍선처럼 둥글게 위로 솟아 있는 모양의
프리기아 모자, 아티스(attis)의 대접, 기원전 520년⁴⁷⁾,
Corpus Vasorum Antiquorum, 1984.



〈그림 10〉 달팽이 모양의 프리기아 모자를 쓴 스키타이
(Skythai) 전사⁴⁸⁾ Corpus Vasorum Antiquorum, 1984.
〈그림 10-1〉 상세도⁴⁹⁾



〈그림 11〉 알로페키스(Alopekis)를 쓴 트라커 군인⁵⁰⁾,
The Metropolitan Museum-Katalog, 1980.
〈그림 11-1〉 상세도

에서 활약했던 아마존(Amazone)⁵¹⁾인들도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했었다. 아마존 군단은 한 때는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에서 트로야를 도와 그리스와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며 그리스인들과 직접 접촉한 종족이었다. 이들의 형상이 기원전 4-5세기에 만들어진 그리스 화병에 다양한 머리쓰개와 함께 묘사되어 있는데 아마존의 프리기아 모자는 전사들의 모자로 목, 귀 덮개가 붙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모자의 형태에는 위의 스키타이 전사의 모자처럼 목, 귀 덮개가 머리를 감싼 모자 부분의 연장으로 길게 내려뜨려진 형태(그림 12, 13)와 호머의 헬멧에서처럼 목, 귀 덮개가 모자에 붙여진 형태(그림 14) 등이 보여진다. 또한 모자 윗부분에 부채모양의 술 장식이 달려있는 형태도 있어 그들이 썼던 프리기아 모자의 다양한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부채모양의 술 장식은 원래 소아시아 남쪽 지방에 살던 동방 종족인 카리(Karer)족⁵²⁾들이 헬멧에 장식했던 닭 벗 모양의 술 장식에서 응용 발달된 것이라고 한다⁵³⁾. 또한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모자 바탕에 장식되어 있는 점들인데(그림 13) 이는 동물 가죽 표피에 있는 점들이 강조된 것이라고 자이테르레(G. Seiterle)⁵⁴⁾는 설명하고 있다.

아마존인들은 그들의 호전적인 힘을 강조하여 남성세계로부터의 독립성을 표시하기 위한 상징물로 프리기아 모자를 애용했다고 한다⁵⁵⁾.

소아시아의 종족 중 트로아인, 아마존인들 외에 페르시아 인들도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했는데 페르시아에서는 프리기아 모자가 여러 계층에서 관찰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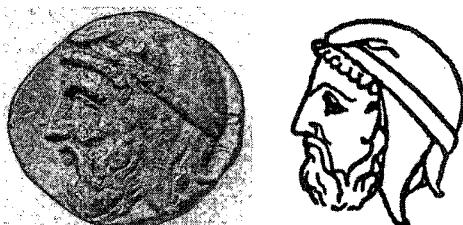
〈그림 12〉 아마존(Amazone)인의 프리기아 모자 복원도⁵⁶⁾
〈그림 13〉 아마존(Amazone)의 프리기아 모자⁵⁷⁾, Corpus Vasorum Antiquorum, 1984. Basel 3, Taf. 35-2.





〈그림 14〉 아마존(Amazzone)의 프리기아 모자의 여러 형태, 부채 모양의 술 장식이 달려 있는 아마존(Amazzone)의 프리기아 모자⁵⁸⁾

고 있어 그 모자가 보다 대중화되어 있었음을 추측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언급되었던 설명 즉 프리기아 모자가 한 때 페르시아 모자로 불려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 한 형태가 기원전 4세기(B.C. 362-353) 그리스의 동전에⁵⁹⁾(그림 15) 새겨진 자트라프(Satrap)인의 형상에서 관찰되는데 자트라프인들은 페르시아에서 주로 행정직이나 재판관 또는 군대 권력가로 등용되어 페르시아 대제국 황제의 눈과 귀로서의 역할을 한 종족으로 페르시아에서는 상류층 이었다⁶⁰⁾. 여기에 묘사된 프리기아 모자는 모자의 끝 부분이 납작하게 앞으로 쳐져있는 형태이고 삼각형 모양의 귀와 목 덮개는 머리를 감싸는 부분에 붙여져 있는 듯하다.



〈그림 15〉 기원전 362-353경의 자트라프(Satrap)인의 모자⁶¹⁾
〈그림 15-1〉 상세도⁶²⁾

또한 페르시아에서 프리기아 모자가 대중의 모자로 착용되었던 예를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서에서 찾아본 연구가 있어 흥미로운데 로델(G. Rodel)은 그의 저서 “머리쓰개와 머리장식 그리고 모자 모드의 역사(Aus der Geschichte der Kopfbedeckungen, des Kopfputzes und der Hutmode)”에서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이 모자를 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⁶³⁾. 다니엘은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 아케메네

스(Achemanes) 왕조 다리우스(Darius) 왕 때 신임을 얻어 다른 유대인 두 명과 함께 궁중에서 시중드는 하인으로 선택되어져 일하던 중 페르시아의 법을 어겼다는 모략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졌다⁶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는 종족 간에 서열이 확실하게 구별되었던 왕조로 종족별 서열별로 서로 다른 머리쓰개를 쓰고 있었다⁶⁵⁾. 그중 궁중에서 왕의 시중을 들었던 종족들은 왕의 절대 신임을 받던 서열 첫 번째의 종족이었다⁶⁶⁾. 아케메네스 왕조의 이런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다니엘을 포함한 유대인이 왕의 시중을 드는 하인으로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은 상당한 예외로 여겨지며 그렇다면 이들은 철저하게 페르시아화 되어지기를 강요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페르시아화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우선 먼저 이들은 페르시아 복식을 착용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위의 로델의 설명을 되새겨보면, 다니엘이 프리기아 모자를 썼다는 사실은 프리기아 모자가 페르시아에서 일반적인 페르시아 모자로 착용되고 있었음을 설명하는 한 예라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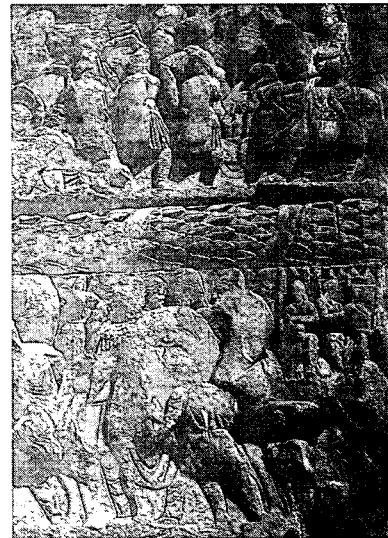
제라트 자이테르레(Gerad Seiterle)는 그의 연구 “프리기아 모자의 원형”에서 페르시아 인들이 썼던 프리기아 모자의 또 다른 형태는 폼페이(Pompeji)에 남아있는 알렉산더(Alexander) 대왕 모자익에서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이 모자익은 기원전 4세기 작품으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시아 다리우스(Darius) 왕의 이수스(Issus) 전투를 묘사한 것인데 그는 첫 번째 그림 다리우스 왕 옆에서 칼을 든 손을 치켜세우고 있는 페르시아 전사가 쓴 모자(그림 17)가 프리기아 모자라고 설명했다. 이 모자는 모자의 위 끝 부분이 뒤로 쳐져 있어 지금까지 살펴본 모자 위 끝부분이 앞으로 쳐져있는 프리기아 모자와는 다른 형태이다. 또한 모자의 양 옆의 귀 덮개는 다른 프리기아 모자와 공통되나 턱 밑에서 묶여져 있는 모양이 다르다. 자이테르레(G. Seiterle)는 모자의 위 끝 부분 모양이 앞으로 쳐지든 뒤로 쳐지든 이를 모자의 제작과정에서 생기는 유기적 특성으로 간주하여 이 모자를 프리기아 모자라고 설명한 듯하나 이는 좀 더 확실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서 규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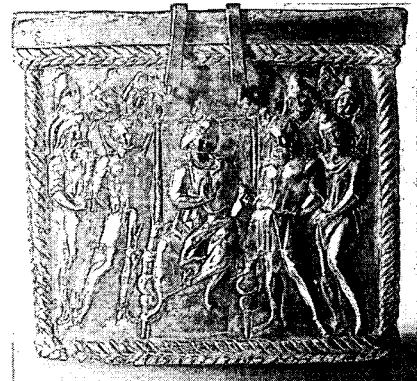
〈그림 16〉 알렉산더대왕 모자익(Alexander Mosaik) 기원전 4세기⁶⁷⁾

3) 로마의 예술작품에 묘사된 프리기아 모자

로마시대에는 그리스 시대와는 달리 로마인들이 직접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동방의 종교로 로마제국에 들어왔던 미트라교의 영향이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원전 4세기경에 페르시아에 등장한 미트라교는 1세기경에는 로마제국으로 퍼져 나가 1세기부터 4세기에는 로마의 주된 종교가 되었었다. 그 당시 로마에서 미트라교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하층 계급, 병사, 외국인, 노예들 이었는데⁶⁸⁾ 미트라교를 믿는 사람들은 미트라 神의 형상을 모방하여 그가 썼던 프리기아 모자를 사용한 듯하다. 실제로 로마 예술 작품 중에서 프리기아 모자는 주로 서민과 노예들의 형상에 묘사되어졌는데 그 중 한 예가 석방된 노예를 묘사한 4세기의 로마의 부조들에서 관찰되고 있다(그림 17). 여기에서 노예들은 자유를 상징하는 의미로 모두 프리기아 모자를 썼다고 한다⁶⁹⁾. 또 다른 예로는 이태리 밀라노에서 발견된 4세기 말의 작품으로 편년된 성유물함(聖遺物函)을 들 수 있는데 은으로 만들어진 이 성유물함 뚜껑과 양 옆 즉 총 5면에 구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와 사도들의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다. 예수이외에 예수 제자들이 모두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데(그림 18)⁷⁰⁾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그 시대 민중들로, 제자 모두 프리기아 모자를 썼다는 것은 프리기아 모자가 그 당시 일반대중들의 모자로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7〉 로마에서 석방된 노예들이 착용했던 프리기아 모자(4세기)⁷¹⁾



〈그림 18〉 프리기아 모자를 쓴 요셉과 그의 무리들(4세기)⁷²⁾

한편 로마시대에도 그리스 시대처럼 동방 출신을 묘사한 작품에 프리기아 모자가 묘사되어져 프리기아 모자는 여전히 이방의 문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라벤나(Ravenna) 아폴리나레 누보 교회당(Basilika S. Apolinare Nuovo)에 있는 모자익에 묘사되어 있는 세 동방박사들의 프리기아 모자를 들 수 있는데 그 형태는 가니메드의 모자처럼 머리를 감싸는 모자 부분만 있고 스키타이 전사나 아마존 군단의 모자처럼 목과 귀 덮개는 달려있지 않다(그림 19).



〈그림 19〉 세 동박박사, 라벤나(Ravenna) 아폴리나레 누보 교회당(Basilika S. Apolinare Nuovo)⁷³⁾

V. 프리기아 모자의 상징적 의미

고대 사회에서 황소 음낭으로 만들어진 프리기아 모자를 사용하는 데는 외적 또 내적 의미가 있었다. 첫째로는 자연을 인간의 생활에 응용한다는 외적인 의미로 이는 짐승의 피부를 복식에 응용한다는 고대 사회의 전통적인 의미이다. 여기에서 인간과 자연은 문화적, 종교적 맥락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고전시대에는 동물의 강한 힘이 그 동물의 가죽을 쓰거나 입는 사람에게 전가된다고 믿었다. 그 한 예로 그리스의 헤라클레스는 사자 가죽을 걸침으로써 사자의 강한 힘을 전가 받았다고 전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황소의 가죽으로 만든 프리기아 모자도 사용되어졌는데, 황소는 특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가죽으로 만든 프리기아 모자를 쓴다는 것은 그 착용자가 황소의 강한 힘을 전가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서 여러 神들의 조형물에 나타나는 프리기아 모자의 의미로 여기에서 프리기아 모자는 단순히 복식의 한 요소인 머리쓰개로서 뿐만 아니라 예식에 필요한 원천적인 요소로서 이해되어지고 있다. 그 한 예로 미트라교에서의 프리기아 모자를 들 수 있는데 미트라교에서는 미트라를 통해 황소를 죽이는 것이 중심 사건으로써 황소의 죽음과 이 죽음으로 얻게 되는 황소의 무한한 생명력이 자연의 재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트라교에서 황소의 음낭은 삶을 기부하는 특별한 상징성을 갖게 되며 황소 음낭으

로 만들어진 프리기아 모자 또한 삶을 기부하는 특별한 상징성을 그대로 전가 받게 되어, 미트라 종교의 가장 높은 봉헌의 단계의 상징으로서 삶을 새롭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 후의 세상, 저 세상을 약속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⁷⁴⁾. 또한 프리기아 모자는 아티스 예식에서도 위의 미트라 종교에서처럼 삶을 기부하는 힘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셋째로는, 여성의 조형물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인데, 아마존과 트라커의 여신 벤디스(Bendis)에서 프리기아 모자는 여성들의 생식력을 상징했다⁷⁵⁾. 이는 삶을 기부하는 황소의 기관으로 만든 모자를 착용함으로써 삶을 기부하는 능력을 전가 받게 된다는 의미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VI. 연구의 결과 및 논의

이 연구는 복식사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전시대부터 문명 교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프리기아 모자에 대한 연구로 그 원형과 전래 과정, 형태의 다양성 또 모자의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기아 모자의 원형은 황소의 음낭과 그 주변 황소 가슴의 젖꼭지부분으로 만들어진 호머의 가죽 헬멧의 일종인 카타이티克斯로, 이는 '호머의 가죽 헬멧'을 더 부드럽게 무두질해서 만든 헬멧이며 호머의 헬멧 위에 붙어 있는 솔과 앞면에 붙어 있는 꼭지는 없는 형태이다. 이렇게 카타이티克斯에서 발전한 프리기아 모자의 형태는 위 끝 부분이 약간 길고 둥근 모양으로 위를 향해 꽂꽂이 서 있지 않고 앞쪽으로 기울어져 쳐져있는데 이 형태적 특징은 재료의 전조과정에서 오는 유기적인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프리기아 모자는 원래 동방의 종족들이 착용하던 모자로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에 묘사된 그리스 미술작품 중 동방인들의 형상에서 자주 관찰되고 있어 프리기아 모자가 고대 사회에서 동방 출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형태적인 면에서 프리기아 모자는 다양하여 머리만 덮는 부분만 있는 모자와 머리를 덮는

부분에 귀와 목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귀와 목 부분을 덮는 덮개가 붙어있는 형태가 있었다. 이 부분들은 또한 머리만 덮는 모자 부분에 붙어 있는 형태와 머리 부분을 감싸는 부분의 연장으로 어깨까지 늘여져 있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 형태는 종족이나 계급에 따라 특별한 유형을 보이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셋째, 프리기아 모자의 착용자는 그리스 예술 작품에서는 주로 동방인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주로 왕, 왕자, 전사등 사회 특수층의 형상에서 관찰되어졌다. 반면 로마에서는 동방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대중화되었던 페르시아의 미트라교의 영향으로 로마의 일반시민이나 노예 등의 계급이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하여 프리기아 모자는 로마시대에서는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프리기아 모자가 갖는 의미로는 짐승의 피부를 복식에 응용한다는 즉 자연을 인간의 생활에 응용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는 고대 사회의 전통적인 특징으로 동물 가죽을 쓰거나 입으면 그 동물의 힘이 그 가죽을 착용하는 사람에게 전가된다 는 고대인들의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외에 삶을 기부하는 의미를 갖는 황소 음낭으로 만들어진 프리기아 모자를 여자들이 착용했을 때는 그 삶을 기부하는 능력을 전가받는 의미로 생식능력을 상징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종합하면 프리기아 모자가 그리스 예술 작품에서는 동방인들 중 주로 왕, 왕자, 전사등 사회 특수층에서 관찰된 반면 로마에서는 일반시민이나 노예 등의 계급에서 착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이 연구에서 분석되지 못한 계층들 즉 동방에서의 일반대중과 로마의 지배계층은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스 예술에 묘사된 동방인들 중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한 일반대중들을 묘사한 자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대중들은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는지, 이는 자료의 한계에 기인하는 연구의 한계로 생각되어진다. 사실상 그리스 예술가들은 어떤 특정한 테마를 소재로 다루었기에 그리스 예술에 묘사된 동방인들은 거

의 모두 지배계층이며 일반대중을 묘사한 자료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 시대에는 프리기아 모자는 거의 동방인들 그 중에서도 특수층에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로마시대에서는 주로 서민들에게서 관찰되어 대중화되었던 프리기아 모자가 로마의 지배계층에서 착용된 예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어 로마의 지배계층들은 프리기아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그 당시 로마사회의 특수한 상황 즉 미트라교의 대중화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당연한 듯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의 추가적인 발굴품과 관련 사료의 발견에 따른 향후의 연구과제라 하겠다.

참고문헌

- 1) 그리스어로 anatole, 터키어로 아나톨루, 태양이 떠오르는 곳, 동방의 땅이란 뜻: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민족이동 통로이자 이주활동의 무대로 예로부터 갖가지 문명의 꽃이 피 었었다.(Brandau, Birgit, Schickert, Hartmut 장혜경 옮김 (2001). *Hethiter*히타이트. 서울: 중앙 M&B, p. 15)
- 2) 에트루스케르인(Etruskern)들의 조각에서 이 모자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동방과 직접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고 G. Seiterle는 설명하고 있다(Seiterle, Gerard (1985). *Die Urform der phrygische mutze*. 프리기아 모자의 원형. Antike Welt, 16, Heft 3, Zuerich, p. 3, 11).
- 3) Andreae, Bernard (1973). *Roemische Kunst*. Freiburg: Verlag Herder, p. 354. Taf. 151: Seiterle, Gerard, *ibid.*, p. 10.
- 4) Seiterle, Gerard, *ibid.*, p. 4: Rodel, G. (1942). *Aus der Geschichte der Kopfbedeckungen, des Kopfputzes und der Hutmode* 머리쓰개와 머리장식 그리고 모자 모드의 역사. Wohlen, p. 43.
- 5) 트라커(Thraker) 지방은 오늘날 불가리아 지방이다.
- 6) 혹해 북안에 살던 종족으로 스키타이(Skythai)인들에 의해 원주지에서 쫓겨나 남하하기 시작하여 아나톨리아(Anatolia)와 소아시아제국을 위협함.
- 7) Horuda, Barthel (1991). *Der Alte Orient(Geschichte und Kultur des alten Vorderasiens)* 고대 동방(고대 근동지방의 역사와 문화). C. Bertelsmann, pp. 405-406: Metzger, Henri (1969). *Anatolien II. Vom Beginn des 1. Jahrtausends v. Chr bis zum Ende der roemischen Epoche*. Muenchen, Genf, Paris: Nagel Verlag, pp. 57-58: Lexikon der alten Welt, Zuerich und Stuttgart: Artemis Verlag, 1965, p. 2319.
- 8) 지금의 소 아시아 지역 문명을 말함.
- 9) Metzger, Henri, *op. cit.*, pp. 58-59.
- 10) Schebold, Karl. *Die Griechen und ihre Nachbarn*.

- Berlin: Propylaen Verlag, p. 277: Metzger, Henri. *op. cit.*, p. 61.
- 11) *Ibid.*, p. 60.
- 12) Rodel G., *op. cit.*, p. 40, 41.
- 13) R. Schmoeckel (1982). *Die Hirten, die die Welt veraenderten*. Rowohlt Verlag, pp. 256-257.
- 14) Borchhardt, Juergen (1972). *Homerische Helme, Mainz am Main*: Verlag Philipp von Zabern, 3ff: Seiterle, G., *op. cit.*, pp. 4-7.
- 15) RE(Paulys Real-Encyclopaedie der classischen Altertumswissenschaft(Supplementbaende)) (1922). 11, 2. Stuttgart, p. 2488: Seiterle, G., *op. cit.*, p. 4.
- 16) Seiterle, G., *ibid.*, p. 5.
- 17) RE, *op. cit.*, p. 2510: Borchhardt, J., *op. cit.*, p. 10: Seiterle, G., *ibid.*, p. 6.
- 18) RE, *ibid.*, p. 2516: Borchhardt, J., *ibid.*, p. 8: Seiterle, G., *ibid.*
- 19) RE, *ibid.*, p. 2509, 2517: Borchhardt, J., *ibid.*, p. 8, 9: Seiterle, G., *ibid.*
- 20) Seiterle, G., *ibid.*, p. 5.
- 21) *Ibid.*, p. 4, 5, 6.
- 22) *Ibid.*, p. 4.
- 23) *Ibid.*, p. 7: RE, *op. cit.*, pp. 2502, 2503.
- 24) *Ibid.*, Abb. 4, 6.
- 25) *Ibid.*, p. 10.
- 26) *Ibid.*, p. 7, 주석 32.
- 27) *Ibid.*, p. 8, 13.
- 28) *Ibid.*, Abb. 14.
- 29) Ganymed (2004). retrieved Juli. 30, 자료출처 <http://www.wappswelt.de/ttnp/nineplanets/ganymede.html>
- 30) Woodford, Susan. 김민아 역 (1993). *The trojan war in ancient art*, p. 78.
- 31) Seiterle, G., *op. cit.*, Abb. 7.
- 32) 미트라교(Mithraism)에서는 조로아스터교의 善神 아후라 마즈다(Ahura-Mazda)의 대리자로 미트라(Mithra)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에서 미트라교로 이름 지어졌다. 빛의 신이고 구원자였던 미트라(Mithra)는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Miras, retrieved Juli 30, 2004. 자료출처 <http://gunnet.de/museum/content/roemer/mithras1.html>): Campbell, Josep. (1964). *The mask of god vol. III: Occidental Mythology*. 정영목 옮김 (2003). 서울: 까치방, p. 13.
- 33) Miras, retrieved Juli 30, 2004. 자료출처 <http://gunnet.de/museum/content/roemer/mithras1.html>
- 34) 트라커(Thraker)인들은 기원전 8세기 지금의 불가리아 지방에 살던 종족으로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트(Herodot)에 의하면 이들은 그 당시 인도인들 다음으로 큰 종족이었다고 한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되었으며 기원전 2세기 로마제국의 손에 들어갔다. 자료출처 <http://www.bulgarien-web.de/Geschichte/Fruhzeit.html>
- 35) 오르페우스(Orpheus)는 트라커(Thraker) 지방 출신의 악사로서 미의 신 칼리오페(Muse Kalliope)와 강의 신 오이아그로스(Flußgottes Oiagros)의 아들이거나 혹은 칼리오페와 아폴론(Apollons)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Orpheus retrieved Juli 20, 2004 자료출처 <http://www.mythologica.de/orpheus.htm>
- 36) Seiterle, G., *op. cit.*, Abb. 20.
- 37) *Ibid.*, p. 1.
- 38) Seiterle, G., *ibid.*, p. 3.
- 39) Woodford, Susan. *op. cit.*, p. 166.
- 40) *Ibid.*, 그림 78.
- 41) Glyptothek Muenchen (2003). *Bunter Goetter. Ausstellungskatalog von Glyptothek Muenchen*, Muenchen, Abb. 138.
- 42) *Ibid.*, Abb. 132.
- 43) Raeck, Wulf (1981). *Zum Babarenbild in der Kunst Athens im 6. und 5. Jahrhundert v. Chr.* 기원전 5, 6세기 아테네 예술에 나타난 이방인들의 모습. Bonn: Rudolf Habelt Verlag, p. 81.
- 44) Schroeder, B. (1912). *JdI(Jahrbuch des Deutschen Archaeologischen Instituts)* 27, p. 336: Raeck, Wulf, *op. cit.*, p. 85.
- 45) Vokotopoulou, Julia (1982). Phrygische Helme 프리기아 헬멧. *Archaeologischer Anzeiger*.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p. 515.
- 46) Raeck, Wulf, *op. cit.*, p. 73.
- 47) Corpus Vasorum Antiquorum (1984). Schweiz Basel, 2, 3.(Basel, Antikenmuseum und Sammlung Ludwig). Bern, Basel: Verlag Peter Lang, 2, Taf. 9-3, 9-4.
- 48) *Ibid.*, Taf. 45-3.
- 49) Seiterle, G., *op. cit.*, Abb. 13-f.
- 50) The Metropolitan Museum-Katalog (1980). *Gold der Thraker*, p. 20.
- 51) 그리스 전설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서쪽에 있었던 여자들로만 구성된 민족으로 호전적이며 남자들에 대적했다고 함. 일정한 시기에는 남자들과 같이 있으나 나중에는 여자들만을 양육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 이들은 주로 활, 화살, 칼등을 든 전사로 묘사되어졌다.(Der Neue Pauly Enzyklopädie der Antike 1. 파울리 새 고 대사전 (1996). Stuttgart, Weimar: Verlag J. B. Metzler, p. 575: Lexikon der alten Welt, *op. cit.*, p. 134).
- 52) Karer, retrieved, Juli 28, 자료출처 <http://www.geschichteboard.de/lexikon/Karer.information.htm>
- 53) 페르시아 인들은 이 장식 때문에 카리(Karer)족들을 터이라고 불렀다한다.(Seiterle, G., *op. cit.*, p. 13).
- 54) *Ibid.*, p. 9.
- 55) 프리기아 모자의 상징적 의미 참조
- 56) Seiterle, G., *op. cit.*, Abb. 17.
- 57) Corpus Vasorum Antiquorum, *op. cit.*, Basel 3, Taf. 35-2.
- 58) Seiterle, G., *op. cit.*, Abb. 13- e. g. h. i.
- 59) Lexikon der alten Welt, *op. cit.*, p. 2706.
- 60) 구약성경에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Artaxerxes)과 그의 유대인 왕비 에스더(Esther)를 묘사한 에스더서에 자트라프(Satrap)인들이 등장한다.
- 61) Franke, Peter R., Hirmer, Max (1964). *Die griechische Muenze* 그리스의 동전들, Muenchen: Hirmer Verlag, Taf. 202-734V.

- 62) Seiterle, G., *op. cit.*, Abb. 13-f.
- 63) Rodel, G., *op. cit.*: Wohlen, *op. cit.*, p. 41.
- 64) Die Bibel (1980). Stuttgart: Verlag herder, pp. 1012-1013.
- 65)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장영수 (2005). 페르시아(Persia) 아케메네스(Achaemenes) 왕조 시대 머리 쓰개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1), pp. 41-54 참조.
- 66) v. Gall, Hubertus (1972). Persische und Medische Staemme. in AMI(*Archae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NF(*Neue folge*) 5. Berlin: Verlag von Dietrich Reimer, p. 264, 267: Hinz, Walther (1969). *Altiranische Funde und Forschungen*.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pp. 64-70.
- 67) Andreae, Bernard (1977). *Das Alexandermosaik aus Pompeji*. Recklinghausen: Verlag Aurel Bongers, p. 57. Taf. 10.
- 68) Burns, E. M., Lerner, R., Meacham, S., *Western Civilisations*. 박상익 옮김 (1994). 서울: 소나무, p. 81.
- 69) Seiterle, *op cit.*, p. 10.
- 70) Volbach, Wolfgang Fritz (1958). *Fruehchristliche Kunst. 초기 기독교 예술*. Muenchen: Hiemer Verlag, p. 23. Taf. 113, 114.
- 71) Andreae, Berand (1973). *Roemische Kunst*. Freiburg: Verlag Herder, Taf. 151.
- 72) Volbach, Wolfgang Fritz, *op. cit.*, Taf. 115.
- 73) Bovini, Giuseppe (1991). *Ravenna. Kunst und Geschichte*. Ravenna, Abb. 48.
- 74) Seiterle, G., *op. cit.*, p. 10.
- 75) Merkelsbach, Reinhold (1984). *Mithras*. Hain, p. 127.